

# 몽테뉴 교육론 研究\*

元 潤 洙

(佛文科 教授)

## I

우리는 16세기 프랑스 르네상스시대의 사상가이자 예술가였던 몽테뉴의 저서인 『수상록』(Essais)에서 특히 「교육론」(De l'institution des enfants)을 살펴코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몽테뉴의 생애를 간략하게 돌아보고 그가 산 시대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시대를 철저히 산 사람이며 그의 작품은 그가 산 시대와 현실을 자료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책의 자료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쓰고 있기도 하다.

그의 작품 『수상록』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생애의 기록인 한편 그가 산 시대의 증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작품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늘 찾고 있는 몽테뉴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게도 하며 그와 같은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시대상황을 보게도 해주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현상은 다른 어느 장에서 보더라도 그의 교육론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것은, 전환기의 혼란과 격동을 겪으면서 가슴 아픈 현실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치유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미래를 담당하는 어린이나 젊은이의 교육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은연중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리라. 그는 어렸을때 자기 부친의 특별한 배려로 남다른 교육방법에 의해 라틴어를 배웠다. 그는 당시 통용되던 것과는 다르게 벌칙과 억압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법으로 가정교육을 받았는데, 그 훌륭한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적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몽테뉴의 교육론을 배경으로 해 그것과 연관지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가 산 시대를 살펴코, 그가 그속에서 펴낸 슬기와 예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동시에 어떻게 그가 프랑스 르네상스시대를 정리하고 종합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마련한 사상가이자 예술가가 되었는지의 연유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그의 교육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아 볼 것이다.

## 2

미셸·에쎈·드·몽테뉴(Michel Eyquem de Montaigne)는 16세기 프랑스를 특징지은 르

\* 이 논문은 1987년도 문교부 자유공모파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네상스와 종교전쟁이라는 중대한 두개의 크나큰 역사적 사건을 몸소 겪고 그것을 정리하고 종합한 사상가라고 평자들은 쓰고 있다.

르네상스는 문예부흥이라는 해석이 표현해 주듯이 문학과 예술의 부흥을 기도한 일대 전환기를 뜻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과 자연을 재발견케 했다는 점에서 사상적으로 변혁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때까지 모든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시피 했던 종교에도 어떤 개혁의 충동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같은 격동적인 대전환기를 살아나가며 몽테뉴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사색하면서 그것을 『수상록』속에 담고 있다. 『수상록』은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2권은 1572년부터 쓰여져서 1580년에 출간된 것으로 각각 57장(章)과 37장으로 되어있고, 3권은 13장으로 1588년에 간행되었다.

그가 남긴 책의 이름인 Essai란 그가 살던 당시의 뜻으로는 시도(tentative), 시험(épreuve) 훈련(exercice)으로서 오늘날의 뜻으로는 시험(test)과 같은 의미를 띠는 것이다. 따라서 essayer란 동사로 그것을 다시 풀이 하자면, 기도하다(entreprendre), 실험하다(expérimenter), 시험하다(faire l'épreuve de)의 뜻이 되는 것이다.<sup>1)</sup>

그것은 몽테뉴의 전 생애를 통해 일관되게 지녀온 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뜻을 품는 말이 된다. 즉 그는 어떤 사상이건 혹은 어떤 의견이건 간에 그것을 받아드리기 전에는 조사하고 시험하고 여러가지로 재어보고 음미한 다음에야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몽테뉴의 연구가들은 보통 그의 사상의 전개과정을 세단계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스토아파적인 금욕주의(stoïcisme), 이어서 회의주의(scepticisme)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락주의(épicurisme)의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도식적인 구분은 어려운 것이, 그 세가지 개념의 정의와 그것을 몽테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평자들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된 구분과 결론에 도달키는 어렵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가 그 세가지 사상천개의 양상속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첫번째의 금욕주의에 있어서 비록 그 당시의 시대풍조에 영향을 받고 또한 몽테뉴 자신의 이상주의적 성향에 의해 금욕주의에의 지향을 지니고 있는 속에서도 늘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철저한 검토정신이라는 것이다. 즉 자기의 의견이나 사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는 여러모로 그가 대상으로 삼는 바의 것을 철저히 시험하고 검토하고 음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 단계의 회의주의만 해도, scepticisme의 그리스어 어원에는 검토하고 탐구하고 음미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회의적(sceptique)이란 말의 반대어는 독단적(dogmatique)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될 수 있는 판단증지는 우유부단이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려는 진지한 태도이며, 그의 평생을 떠나지 않은 검토하고 시험하려는 태도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1) G. Mathieu: *Les Essais*, Hachette, 1983, p.9 참조.

마지막 단계인 épicurisme도 어떤 체념적인 쾌락적 생각을 지닌 태도라고 하기 보다는 경험하고 행동하며 세계를 포착하고 흡수하는 진지한 내용이 스며 있는 쾌락주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호의와 세계의 아름다움을 그가 받아들이는데 있어 일관된 바탕이 되는 그의 태도는 검토하고 시험하며 탐구하는 그것과 거리가 멀지않은 것이다.

어떻든 몽테뉴가 다룬 테마는, 움직이고 있는 것, 즉 운행되고 있는 세계와 살아가고 있는 인간, 그리고 느끼고 있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인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와 인간의 한결같지 않음이, 즉 변덕스러움이 그 테마인 셈이다. 몽테뉴에 의하면 그와 같은 변덕스러움(inconstance)은 세상과 사람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대상을 다룬 『수상록』은 따라서 불일치 하는 점이 없지 않고 또한 체계를 갖추고 재단된 철학적인 글로 되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수상록』은 형이상학적인 고담준론이라기 보다는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상록』의 목적을 일별하면 그와 같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거기에는 인생의 제백사가 다 나열되어 있다. 우정, 결혼, 사랑, 성욕, 독서, 풍속, 습관, 돈, 병, 의학, 건강법, 전쟁, 식욕, 술, 장례, 자유, 고문, 또는 누구나 생각지 않을 수 없는 죽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교육론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한 것들을 그는 자신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자신은 모든 개인이 지닐 수 있는 인간 조건을 완벽하게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시험하면서 인간을 시험했으며 자신을 검토하면서 인간을 검토했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음미하였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의 여러 현상은 그가 겪는 여러가지 고통과 슬픔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다. 그것 또한 관찰과 검토 그리고 시험을 거친 끝이었다.

그것은 그가 산 시대정신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검토의 정신이라는 사실이다. 프랑스 르네상스시대는 그 이전의 시대인 중세와의 단절이라는 주장과 그와 같은 주장에 유보를 두는 이론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은, 르네상스시대엔 종전의 논리대로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자유검토 정신이 지니는 그 시대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몽테뉴의 태도속에는 자기시대의 특징적인 주류가 되는 정신이 일관되게 흘러온 셈이 된다.

그와 같은 분위기는 정신의 해신을 뜻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며, 과학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되기도 했다. 그것은 새로운 사상이 배태될 수 있는 토양이라고 할 수도 있으리라. 그 분위기는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는 동안 끊임없이 감도는 것이며 늘 우리 독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되풀이 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의 작품이 어려운 내용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의 새로운 사상은 난삽한 것이 아니며, 그의 관찰과 탐구는

우리 주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가 내세우는 슬기(sagesse)는 높은 위치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몽테뉴는 자기 시대를 관류하는 정신에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동시대인이 하던 방식대로 고대인의 지혜와 슬기를 재발견하고 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탐구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사상의 제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3

그러면 우리는 몽테뉴가 산 시대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가 산 시대는 근세(近世)의 시작으로 그때에 일어난 세계사적인 큰 사건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왕권확립에 의한 중앙집권국가의 성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크나큰 사건은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사실에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르네상스로 불리우는 문예부흥운동은, 그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재발견되고 자연을 자연법칙에 의해 관찰하는 정신이 생기게 되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그 터전을 마련해 준 것으로서, 프랑스 정신사에 있어서 사상적인 변혁을 불러 일으키는 획기적인 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간략하게나마 보아온 바이다.

그와 같은 문예부흥의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즉 프랑스는 중앙집권의 왕권을 확립하자 1549년부터 여러번 알프스를 넘어 그 군대들이 이탈리아로 원정을 갔다. 거기서 프랑스인들은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번성하는 상업과 화려한 예술로 현란한 그 아름다운 도시에 프랑스인들은 매료되었다. 어떻든 그와 같은 인연으로 해서 프랑스인들은 이탈리아인들의 발전된 예술과 문화에 접촉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에선 이미 한 세기 전 부터 단테의 『신곡』으로부터 시작된 문예부흥운동으로 인해 페트라르카나 보카치오와 같은 인문주의자(人文主義者)들을 배출하였으며, 건축, 조각, 회화등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물론 동방무역이라는 상업에서 얻은 과실은 그와 같은 문화발전에 크나큰 배경이 되고 있었다.

어떻든 프랑스군인들은 그들이 위성한 도시의 거리 사방에서 훌륭한 미술 공예품을 보게 되고 아름답고 정교한 금세공품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고대의 학문예술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는 사실을 눈앞에 보고 감탄을 했다. 고딕예술과 복잡한 스킴다 학파의 침침한 분위기 속에 파묻혀 있던 프랑스인들이 알프스 저 너미에서 명쾌한 시민들이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우고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하늘의 계시보다는 생활의 지혜를, 기도보다는 자연의 우아함이 문명을 물들여 주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은 물론이었다.

그와같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과 더불어 우리가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구텐베르크

의 인쇄술이 프랑스에 갖다준 과문이라 할 것이다. 1470년에 프랑스에 도입된 활판인쇄술(活版印刷術)은 그 후 30여년간 800종류나 되는 책을 간행케 했는데 그것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제한된 사람들만이 책을 볼 수 있던 사본(寫本) 시대의 지식의 특징은 그 종말을 고하고 만 것이다.

그와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도 당시 권위주의적 독단에 빠져 있던 소르본느의 신학자(神學者)들은 그 국면을 외면하고 답답한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했다. 그러자 인분주의자(humaniste)들과 복음주의자(évangéliste)들이 그 위기를 타파코자 나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 로마의 고대문화와 원시 기독교에의 강한 관심을 표시했다.

그들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공부하여 고대문화를 재발견하고 그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인간 본래의 모습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들은 성서의 원전 속에서 그리스도교 본래의 신앙을 찾는다는 대망을 품고 새로운 길을 개척코자 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프랑스의 르네상스시대는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또한 의욕이 넘쳐흐르고 희망에 가득찬 왕성한 지식욕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블레의 다음과 같은 글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가르강튀아(GARGANTUA)의 델렘수도원(L'Abbaye de Thélème) 묘사에서 르네상스시대 사람의 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Tant noblement étaient appris qu'il n'était entre eux celui ni celle qui ne sût lire, écrire, chanter, jouer d'instruments harmonieux, parler de cinq à six langages, et en iceux composer, tant en carme qu'en oraison solue. Jamais ne furent vus chevaliers tant preux, tant galants, tant dextres à pied et à cheval, plus verts, mieux remuant, mieux maniant tous bâtons que là étaient. Jamais ne furent vues dames tant propres, tant mignonnes, moins fâcheuses, plus doctes à la main, à l'aiguille, à tout acte meulière honnête et libère, que là étaient. (GARGANTUA, Chap. LVII.)

그들은 너무나 고귀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 중 남자이건 여자이건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노래를 하거나 악기란 연주하거나 대어섯 나라 말을 한다거나 또 그리한 말들로 시나 산문을 쓴다거나 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기사(騎士)도, 그 수도원에 있는 남자들 보다 더 용감하거나 여자에게 친절한 사람은 없고, 걸어서이거나 말을 타고서나 그렇게 진퇴에 능숙한 사람은 본 적이 없으며, 그들 만큼 원기왕성하고 더 민첩하며 그 만큼 능숙하게 모든 무기를 잘 다루는 기사들은 결코 아직 본 적이 없다. 어떤 여성이라 한지라도, 그 수도원에 있는 여성들 보다 더 우아하고 애교가 있으며 자중내지 않으며 더 한층 손제주와 마느질 잘 하는 여자들은 본 일이 없으며, 정숙하고 자유스런 모든 여자들에 더 능숙한 여성들은 아직 결코 본 일이 없었다. (가르강튀아 57장)

르네상스시대 사람들의 꿈의 구현이라 할 수 있는 위의 글에서, 우리는 광명과 품위가 문예에 주어지고 모든 학문분야가 복원이 되고 모든 언어들이 연구되고 활기를 얻게 되자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지나친 낙관주의를 엿볼 수 있다. 그러자 당시 사상적인 지배자로 군림하던 구교에 대항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세력은 수공업자들

을 중심으로 그 개혁에의 의지가 확산되어 개혁에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그 힘을 넓혀 갈 수 밖에 없었다.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확산된 정신의 쇄신운동은 사상의 문제로부터 정치 사회의 문제로 까지 진전되게 된다. 물론 인문주의자들도 나중에 과격한 개혁운동가들로 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여하튼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에의 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수구파와 개혁파의 대립으로 프랑스는 여덟차례의 싸움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1562년 와씨(Wassy)의 대학살로 시작되어 1598 낭트칙령으로 마무리 되는 종교전쟁인 것이다. 몽테뉴는 『수상록』의 제 3권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쓰고 있다.

《Je me suis couché mille fois chez moi, imaginant qu'on me trahirait et assommerait cette nuit-là, composant avec la Fortune que ce fût sans effroi et sans langueur...》(Essais III, chap. 9.)

나는 집에서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밤은 누군가 나를 배반하고 때려눕히리라고 생각울 하며, 그것이 겁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게 피기를 행운과 요행에 기대를 걸며, 드러누운 일이 수없이 많다.

그와 같은 분위기는 그가 얼마나 심한 격동기에 살고 있었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르네상스를 맞이하자 희망과 꿈에 부풀어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지평이 열려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욕을 품게 되었다. 앞의 라블레의 글에서 볼 수 있었듯이 거의 탐욕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의 왕성한 의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의 영역은 더욱 넓혀져 기존의 정신적 질서에의 도전은 물론이요, 사회적 정치적 변혁에의 의도가 강렬하게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현상에 적응, 대처할 수 없는 구세력의 반동도 그리 녹녹치는 않았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개혁파와 수구파의 공방은 유혈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인문주의자들 중에서는 그 인문주의를 진전하고 온화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도덕을 창조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 온건파도 있었다. 그러나 주역은 과격파들의 역할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이후 근 사십년을 프랑스는 내란의 참극 속에 보내게 되어 광신적 행동(fanatisme)이 활개를 치게 된다. 그것은 참으로 뼈를 깎는 시련이었다고 하겠다.

그와 같은 과도기를 몽테뉴는 살아 왔으며 그 아픔을 몸소 겪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시대에 등을 돌리지 않고 『수상록』 속에서 《자신의 세대와의 연대성을 늘 증명해 왔는데, 그 세대란 르네상스의 희망과 변영에 의해 키워지고 그것의 파괴를 입회했던 세대》<sup>2)</sup> 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수상록』 속에 그 세상을 살아온 내력을 그와 같은 고난을 겪어온 슬기를 적고 있으며, 자기 시대를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탐구하고 있는 모습을 그는 보여왔기 때문이다.

2) 《Montaigne prouve sa solidarité avec sa génération: une génération qui nourrie dans l'espérance et la prospérité de la Renaissance, assiste à sa destruction》. Géraude Nakam, *Montaigne et son temps*, A.-G. Nizet, Paris, 1982, p.12.

몽테뉴는 어떤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보다는 진리를 찾기위해 평생 일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의 교육론 또한 그와 같은 추구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가 산 과도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한 모색의 한 방편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몽테뉴의 「교육론」(De l'institution des enfants)에서 자기가 산 시대의 특징은 그대로 지니면서 그 특징이 지니고 있는 단점은 속아내고 그 장점을 자기것으로 육화시키려는 노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몽테뉴가 자기 시대를 정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마련해준 위대한 사상가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 4

몽테뉴는 1580년 초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던 귀르송(Gurson) 백작부인 디안느 드 프와(Diane de Foix)에게 『수상록』속에서 자신의 교육론을 개진하고 있다. 그는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규정하고, 기억력을 가득 채우기 보다는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교사의 목적인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린이의 판단력(le jugement)을 키워주는 데 있어 여행과 대화 그리고 일상생활과 책들을 통한 사람들과의 교류에 의한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가르쳐야 할 유익한 것으로서 윤리 도덕과 사는 법을 터득케 해 주는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요컨대 그는 책을 잔뜩 읽어진 당나귀로 어린이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가득찬 머리 보다는 잘 도야된 머리 (une tête bien faite plutôt que bien pleine)를 주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선생님은 배운 학과의 글자들만 알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 학과의 뜻과 내용을 알아 뒤야 할 것을 학생에게 요구해야만 될 것이고, 선생님은 그 학생이 얻는 소득이 기억의 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삶의 경험에 의한 것인가 어떤가를 판단해야 한다><sup>3)</sup>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몽테뉴는 기억력보다 판단력을 더 상위에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몽테뉴의 교육론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의 표현이다. 즉 <오직 미친 사람들과만 확신에 차 있고 과감한 것입니다><sup>4)</sup>라는 말이다. 그것은 극단으로 치달고 있던 과도기에 볼 수 있었던 광신적 태도들에 대한 비판도 되고 그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추구라고도 하겠다. 그러면 그와같은 표현의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 몽테뉴가 산 시대의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다시 살펴기로 하자. Yvonne Bellenger는

3) Qu'il ne lui demande pas seulement compte des mots de sa leçon, mais du sens et de la substance, et qu'il juge du profit qu'il aura fait, non par le témoignage de sa mémoire, mais de sa vie. (Essais, I, Chap. 26.)

4) Il n'y a que les fols certains et résolus. (Essais I. Chap. 26.)

그의 *Montaigne*라는 책에서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Ce contraste est caractéristique de toute la Renaissance française, partagée entre la ferveur et le dogmatisme, l'ouverture sur le monde et le repli, la générosité et la haine, la grandeur et la mesquinerie. Le XVI<sup>e</sup> siècle commence avec l'élan fou et chevaleresque, encore largement médiéval, des guerres d'Italie, et il se termine dans les cruautés et les massacres provoqués par les conflits idéologiques des guerres de religion—affligeante apparition d'une certaine forme de mentalité moderne. (Yvonne Bellenger: *Montaigne—une fête pour l'esprit*, 1987, Balland, p.30.)

그 대조는, 열성과 독단론, 세계로의 열림과 물러남, 관대함과 증오, 위대함과 초라한 사이에 갈라져 있던 프랑스 르네상스 전 시대를 통한 특징인 것이다. 16세기는 이탈리아 전쟁의 광적이던 기사도적인 그러나 아직도 중세적인 충동과 함께 시작이 된다. 그리고 종교전쟁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야기된 잔혹성과 학살 속에서 그 세기는 끝을 맺는 것이다—근대정신의 어떤 한 형태의 비통한 출현이다.

그 속에서 오류와 독단에 빠지지 않고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진리와 문명의 이름 밑에 벌어지는 살륙, 음모, 잔혹행위, 참극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물론 인문주의자들은 중세적 분위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영혼의 구제와 사상의 지배 및 교육과 의식등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려는 교회에 대하여 모두 반대를 했으나 반드시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거기에도 온건파와 과격파가 있어 서로 분열의 조짐이 보이자 과격파는 더욱 강력하게 인문주의가 지니는 진보성을 천예화시켜 현실타파 운동의 조직적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러자 1534년 새로운 사상의 옹호자였던 프랑스와 I세의 침실에 벽보를 부착 카톨릭의 미사를 욕하며 카톨릭 옹호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것이 신구교도들의 싸움의 계기가 되는 벽보사건(Affaire des Placards)인 것이다. 그러나 수구파의 본고장인 쾰른 본노와 빠리고등법원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하여 반격에 나서 화형대 위에선 수없는 순교자가 나오게 된다. 그러자 프랑스와 I세도 개혁파 탄압에 앞장을 서게 된다. 그러나 피로 피를 씻는 양진영의 대립은 서로가 극단으로 달려, 탄압을 피해 슈테브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 깔벡은 자신의 그것과 다른 주장을 한 미셀 세르베를 화형에 처해 버렸다. 근 40여년을 계속한 종교전쟁이라는 내란의 근원은 그렇게 시작을 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참상 속에 자기 시대를 철저히 관찰하고 살아 왔던 몽테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교육론은 그 내용의 특이한 점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암시해 주는 그가 산 시대 상황을 엿보게 함으로써 더욱 흥미롭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교육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궁이 가는 내용을 지니고 있어 우리의 주의를 끌지만, 16세기 몽테뉴 시대에 필요불가결했던 요소를 가르치고 있어 우리에게 그가 산 시대상을 보여 주기 때문에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교육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생님은 제자에게 모든 것을 제로 쳐서 걸러내



주고, 그의 머리속에 단순한 권위나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무엇을 받아 들여선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이건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원칙이건 그것이 그 학생의 원칙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 학생에게 판단의 그 다양함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럴 수 있으면 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미친 사람들만이 확신에 차있고 과감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아는 것과 똑같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단테)<sup>5)</sup>

몽테뉴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남의 말에 너무나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남의 환상에 열매이고 그들의 가르침의 권위에 구속되어 노예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그는 피사에서 만난 아리스토텔레스 맹신자를 들고 있다. 그 사람은 모든 견고한 사상과 진리의 법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에 일치하므로 다른 모든 생각들은 헛소리들이고 불건전한 사상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만이 모든것을 보고 모든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맹신의 오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독단주의는 자신만이 옳고 다른 주장은 다 그르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그 비극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체로 걸러서 받아들이고 아무리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주장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단(jugement)의 다양함을 학생에게 보여 주어, 스스로의 판단력으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선불리 확신을 하고 과감한 체하여 미친것을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확신을 하고 과감하다는 것은 타협과 대화를 거부하기 쉽고 극단으로 치달으며 광신적 행위에로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몽테뉴는 그와 같은 사연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으며, 제각기 소신과 신념을 한치도 양보 않는 맹신 속에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늘 보며 살아왔다. 따라서 위에 인용한 글귀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뼈아픈 교훈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생이 자신의 생각으로 크세노폰이나 플라톤의 의견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의견이 아니고 자신의 의견이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뒤따르는 것은 아무것도 뒤따르는 것이 아니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또 아무것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왕 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각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도록'(세네카). 학생은 적어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그들의 교훈을 매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취향

5) Qu'il lui fasse tout passer par l'étamine, et ne loge rien en sa tête par simple autorité et à crédit. Les principes d'Aristote ne lui soient principes, non plus que ceux des Stoïciens ou Épicuriens. Qu'on lui propose cette diversité de jugement: il choisira, s'il peut; sinon il en demeurera en doute. Il n'y a que les fols certains et résolus.

*Che non men che saver dubbiar m'aggrata.*

(Essais I, chap. 26.)

에 젖어들어야만 됩니다. 원하면 그가 어디에서 그것을 얻었는가를 과감하게 잊어 버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자기것으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sup>6)</sup>

몽테뉴의 이 글을 보면 1530년 세대의 인문주의자의 야망, 즉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배우자는 낙관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가르강튀아에서 볼 수 있었던 거의 탐욕적이라 할 수 있는 지식욕을 이미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암기위주의 공부, 지적인 자유가 결핍된 맹목적인 추종의 불허, 즉 현학적인 태도에 결연히 반대하고 수사학이라든가 복잡한 추리논법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나 훌륭한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배운 것을 자신이 소화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꿀벌이 어떻게 자기꿀을 만드는가와 비유를 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꿀벌들은 여기저기 꽃에서 꿀을 따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갖고서 꿀을 만드는데, 그것은 온통 자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젠 백리향꿀도 아니고 꽃박하꿀도 아닙니다. 그처럼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모든 것을 변형시키고 함께 녹여서 온통 자기것인 하나의 작품으로 즉 판단력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학생이 받는 교육, 그의 공부, 그의 학업은 그를 혼도한다는 목적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sup>7)</sup>

우리는 여기서 판단력(jugement)이라는 말이 지니는 중요한 뜻을 다시 한번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교육은 지식을 가르키고 배우는 데 그치는 instruction이라기 보다는 인간을 도야시키는 éducation을 뜻하는 것이 된다. 두 낱말은 우리 말로 교육이라는 뜻을 지니지만 instruire는 지식을 배우는다는 뜻이다. instruire quelqu'un하게 되면 아무개의 지능을 풍요하게 해주고, 기억력 덕분에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지식을 그 아무개에게 전달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유식한 사람(l'homme instruit)은 무지한 사람(l'ignorant)의 반대이다. homme sans instruction은 문맹(illettré)을 뜻하는 것을 보면, 몽테뉴가 지향한 교육의 지상 목표가 instruction은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몽테뉴가 목표로 삼은 교육은 éducation으로 그 낱말의 뜻은 인간의 도야와 발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지능 뿐만 아니라 감수성 특히 성격 그리고 좋은 품행 등 원래 어린이나 젊은이 속에 이미 있는 기능과 소질을 개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양성, 훈련, 도야, 함양한다는 뜻인

6) Car s'il embrasse les opinions de Xénophon et de Platon par son propre discours, ce ne seront plus les leurs, ce seront les siennes. Qui suit un autre, il ne suit rien, il ne trouve rien, voire il ne cherche rien. *Non sumus sub rege; sibi quisque se vindicet.* Qu'il sache qu'il sait, au moins. Il faut qu'il emboîte leurs humeurs non qu'il apprenne leurs préceptes; et qu'il oublie hardiment, s'il veut, d'où il les tient, mais qu'il se les sache approprier. (*Essais* I. Chap. 26.)

7) Les abeilles pillotent de ça, de là, les fleurs, mais elles en font après le miel, qui est tout leur; ce n'est plus thym ni marjolaine: ainsi les pièces empruntées d'autrui, il les transformera et confondra, pour en faire un ouvrage tout sien: à savoir son jugement. Son institution, son travail et étude ne vise qu'à le former. (*Essais* I. chap. 26.)

former란 말과 연관된 교육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éducation은 지(知)적인 교육, 덕(德)을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체육 등 전체교육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instruction으로 표현되는 지적인 교육은 몽테뉴의 éducation에 보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육을 온전한 것으로 하기 위해선 어떤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방향이란 바로 자유스런 인간인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 인용한 몽테뉴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어디에 얽매이고 맹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독립성을 지키는 판단력을 지니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가 사용한 former와 jugement의 뜻이 그의 「교육론」(De l'institution des enfants)에 어떠한 무게를 갖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 몽테뉴는 그와 같은 교육론을 펴냄으로써 해서 자신이 산 시대가 지니고 있는 모순과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광신적 행동으로 얼룩진 자신의 시대를 증언하고, 미래를 맡을 젊은이와 어린이들을 자유인으로 형성시켜 주기 위해,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느냐에 노심한 끝에 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함으로써 자신의 시대는 물론이려니와 후세에도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교육론을 세운 것이다. 어떠한 시대에도 광신과 맹목적인 추종, 그리고 판단력 없이 습득한 지식의 축적만으로 교육의 임무를 다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거기에 그의 교육론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몽테뉴의 교육론은 18세기 루소의 교육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의 프랑스 교육의 재검토에도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선 몽테뉴 이후의 프랑스 교육에 방향을 늘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몽테뉴 교육론의 현대적 의의를 살리는 것도 의미 깊은 작업이 될 것이다.

## 5

몽테뉴 교육론의 현대적 의의는 여러가지 입장에서 그것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몽테뉴는 16세기 때의 사람이고 시대 상황, 삶의 조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과학과 학문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우리는 몽테뉴가 산 시대와 상이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산 시대부터 출발한 과학의 발전 덕분에 산업의 발달과 지리상의 발견으로 인한 지구의 축소화 등으로 해서 오늘날 그가 산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혁명으로 이룩된 새로운 사회구조의 변모는 이제 후기 산업사회를 운위하게 되었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16세기 시대의 몽테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변모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 주역의 대열에 들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에서 삶을 살기 위해선 그야말로 무한한 학문, 즉 라블레의 교과목처

럼 대단한 학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몽테뉴가 산 시대와 오늘날을 똑같은 선에서 다루고, 몽테뉴의 지론을 우리의 그것으로 그대로 받아드릴 수는 없다. 다만 그가 주장한 교육론의 본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것이 왜 오늘날 프랑스 교육의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제시에 큰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자원이 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보다 올바른 태도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문명의 시대에 우리는 무지하거나 문맹이 되어서는 살 수 없다. 그리하여 지식의 습득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려니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기본지식도 그 양은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요즘은 기억력에 의해서만 아니라 기계조작에 의해, 그리고 새로 발견한 지식 습득 도구에 의해 어떤 면에서는 예전과는 보다 쉽게 지식을 터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양은 과거에 비해 숨막히게 많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습득한 지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다시 말하자면 그와 같은 지식의 습득은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서 인간자유의 획득이라든가 인격의 도야라든가 인간완성이라든가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산업사회에서 전문적 또는 일반적 지식없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그와 같은 무지의 상태에서 자유의 획득이나 인격의 완성이란 구두선에 불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오늘날 사회에서 지식의 충족만으로 혼란한 사회구성원이 되고 또한 그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풍요한 지식 덕분에 얻는 물질적인 보상만으로 과연 행복을 창조할 수 있을런지. 그 물질적인 보상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도 어떤 판단력이 필요한 것은 아닐런지.

거기에 몽테뉴의 교육론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는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 보다는 잘 함양되고 잘 도야된 머리를 더 중요한 것으로 삼은 것이다. 암기식으로 외운,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 소화 않고 삼킨 지식,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교육의 본분이라고 생각지 않았으며, 그것은 학생을 어디에다 예속을 시키는 어긋난 교육이라고 했다.

그가 무엇보다도 중히 여긴 것은, 독립성을 지니고 자신이 배운 것을 소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것으로서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라 했다. 그리하여 지식의 무비판적인 축적이 갖다주는 폐해를 일찌기 간파한 것이다.

오늘날 지식의 축적이 저지르는 오류를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 비근한 예로 기술문명의 혜택 또한 적지 않지만 그 폐해를 일일이 나열치 않는다 해도, 우리는 서구에서 일고 있는 환경보호운동(mouvement écologiste)을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적교

육의 편중에서 온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는 몽테뉴의 교육론에서 그 처방의 중요한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교육론은 그 어디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불매의 자유정신에 입각한 판단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교육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광신행위에 대한 그의 적절하고 합당한 경고이다. <오직 미친 자만이 확실하고 과감하다>라는 말이다. 이십세기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지구 사방에서 갈피잡을 수 없는 행위, 즉 이데올로기에 의한, 또는 정권을 탈취기 위한 탐욕에 비롯된 싸움, 신앙에서 오는 비타협적인 열광 등, 광신행위(fanatisme)가 저지르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다만사로 듣고 보고 있다. 그것들은 무비판적인 지적 축적이 이룩한 과학문명이 제공한 대량학살 무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성의 근본에서 있어선 16세기나 현대나 크나큰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근본취지에 있어서, 비록 시대는 다른 것이나, 몽테뉴 교육론에서 얻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어디에 역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좌우를 가름할 수 있는 판단력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해서 몽테뉴 교육론이 오늘날에도 현실감이 있게 가슴에 와닿는 이유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프랑스 교육을 재검토하는데 있어 흔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몽테뉴의 교육론을 참고로 조명해 볼때,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 교육도 암기 위주이고 지식 교육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동안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도 전인교육을 내세웠지만 무엇인가 분명치 않은 내용을 허울썩은 추상적인 표제 밑에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몽테뉴의 교육론이 지니는 그 시대적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를 파악한 다음 우리나라로 소화하여 우리 교육을 재평가 하는데 참고로 삼는다면 그 얻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몽테뉴는 우리가 보아왔듯이 피비린내 나는 내란속에 살아 왔고 가슴 아픈 동족상잔의 사련을 겪었으며 그러한 속에서 슬기 있게 살아가는 방법(un art de vivre)을 모색한 사람이었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 우리 자신 내란과 동족상잔의 슬픈 사연을 겪고 아직도 이데올로기 싸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확신을지닌 과감한 사람들의 대결이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빠져나지 못하고 있다. 그와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의 교육론은 우리에게 값진 것이 되리라라고 생각한다.

대를 배경으로 하여 그의 교육론이 지니는 뜻과 그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바의 것이 무엇인가를 살폈다. 특히 그는 자기 시대를 철저히 살고 그 시대의 아픔을 절실히 느낀 한편,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 교육론에 묵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런 한편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실득력을 주는 독립적인 판단력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전수토록 그의 교육론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되풀이하고 싶은 것은 그가 교육론을 펴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대를 증언하고 그 시대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Géralde Nakam은 *Montaigne et son temps*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현실은 혜택받은 자료를 제공했다. 그 현실은 동시에 행동의 한 이상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또한 고통을 갖다 주었다. 그 고통에서 자신이 그리고 또한 자신의 동시대인이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 고통에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으로 대답을 했다. 그 까닭은 『수상록』이 치료의 기능을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여기서 예술가란 물론 몽테뉴를 말하는 것으로, 그를 철학자로 지칭하기 보다는 예술가로 지칭한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요컨대 그의 교육론을 통해 본 몽테뉴는 사상가는 물론이지만 살아가는 방법을 훌륭하게 터득한 예술가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 참 고 서 적

- Montaigne, *OEuvres complèt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2.  
 Montaigne, *Les Essais* (Textes choisis), texte établi par Gisèle Mathieu, Hachette, 1983.  
 Montaigne, *Essais* (Pages choisies), texte établi par René Pintard, Hachette, 1969.  
 Yvonne Bellenger, *Montaigne* (une fête pour l'esprit), Balland, 1987.  
 F. Jeanson, *Montaigne par lui-même*, Seuil, 1951.  
 Françoise Charpentier, *Essais Montaigne*, Hatier, 1983.  
 Géralde Nakam, *Montaigne et son temps*, Librairie A.-G. Nizet, 1982.  
 Rabelais, *OEuvres complèt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55.  
 Daniel Ménager, *Introduction à la vie littéraire du XVI<sup>e</sup> siècle*, Bordas, nouvelle édition, 1984.  
 Jacques Madaule, *Histoire de France*, Gallimard, 1943.

8) «—l'actualité a fourni un matériau privilégié. Elle a également fourni un idéal d'action. Mais elle a aussi apporté une souffrance, à laquelle, pour en guérir lui-même et guérir ses contemporains, l'artiste a répondu par son œuvre: car les *Essais* ont aussi une fonction thérapeutique.» Géralde Nakam: *Montaigne et son temps*, Librairie A.-G. Nizet, Paris, 1982, p. 16.

**“De l'institution des enfants” de Montaigne****Won Yoon-Soo**

Nous nous sommes proposé d'étudier *De l'institution des enfants* dans les *Essais* de Montaigne, grand philosophe et brillant artiste de la Renaissance française. Pour cela, nous avons jeté un coup d'œil sur la vie de Montaigne, puisqu'il avait écrit «Je suis moi-même la matière de mon livre».

Ensuite, nous avons observé de près son temps où le contraste était caractéristique, parce que la France était partagée entre deux camps hostiles et irréconciliables. En ce temps-là le fanatisme dominait le pays tout entier et les guerres de religion ravageaient corps et âme des Français. Au commencement de son temps, c'était la ferveur, la générosité et la grandeur; mais on avait fini par le dogmatisme, la haine et la bassesse.

Nous avons constaté que l'auteur des *Essais*, nourri et élevé dans l'enthousiasme de la Renaissance française, avait assisté à sa dégradation affligeante. Nous avons remarqué que pour remédier à cette tragédie, Montaigne écrivait son œuvre et que ses idées sur l'éducation étaient en quelque sorte un remède efficace contre le fanatisme qui sévissait le pays, car enfin elles étaient destinées aux enfants, maîtres du monde à l'avenir.

Selon Montaigne le précepteur devrait avant tout former le jugement de son élève. Montaigne s'était opposé à l'optimisme de la génération rablésienne qui voulait tout savoir et tout apprendre; il s'était refusé au pédantisme: le savoir par cocur, enfin il avait critiqué sévèrement la rhétorique et la dialectique compliquées.

Pour conclure, nous avons essayé d'en dégager des leçons en vue d'améliorer l'enseignement de notre pays.